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진보 대통령이 뜻밖에도 보수 정당의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며 그 청문회가 큰 주목을 받았다. 최고 학벌과 화려한 인맥을 뒷배 삼아 국회의원직에 올랐던 그이는 국회 청문회에서 제 흠결을 뽐내듯 따져 묻는 의원에게 항변을 했다. “의원님,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이의 드러난 처신들은 고개를 내저을 만큼 낯설고 지저분했다. 편법과 반칙을 일삼으며 개인 영달을 꾀하며 부를 쌓은 그이의 누추한 인생 역정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결국 낙마했다.

아무 흠결을 남기지 않고 대쪽같이 바르게 한 생애를 사는 건 어려운 일이다. 살다보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일에 연루되기도 하고 오점이나 얼룩이 생긴다. 내 주변에서도 제 안의 세속적 욕망과 미성숙한 처신으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나 역시 마흔 중반에 큰 위기를 맞았다. 빛나던 선택과 탐욕으로 생활이 파헤치고 문란해졌을 때가 있었다. 나는 시골로 낙향해서 그 시절을 묵묵히 건너왔다.

종교칼럼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새벽에 혼자서 기도하고 있노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다행(多幸), “뜻밖에 일이 잘되어 운이 좋다”는 뜻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있다. 그러나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행복함이 많다, 아주 행복하다는 뜻이다.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행복한 일이 생기니 그냥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행복한 것이 ‘다행’이라는 말의 본래 뜻인 모양이다. 아마도 새벽 기도를 할 때만큼은 행복한 모양이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세상 소식을 둘러본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문득 생각한다.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을때 가장 행복할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은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이루는 중요한 속성이다. 그래서 행복을 갈구하는 것은 어쩌면 행복하지 못함을 실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

어른이 되고 나서, 잊을만 하면 한번씩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삶의 무미건조함을 느끼곤 했다. 신변잡담, 뒷담화, 맛있는 음식, 드라이브, 쇼핑, 사우나, 인터넷 서핑…. 이런 것들에 기대지 않고도 삶이 무미건조하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기 고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가 모든 뉴스를 빨아들였다.

통합 골격은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를 분산 배치하고 권역마다 산업과 기능을 균형배치하겠다는 것이다. 통합하려는 주된 이유는 지방소멸 위기속에서 규모경제를 이루고 정주민구 부족을 생활인구 확대로 보완하면서 정부지원과 각종 권한이양과 특례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행정과 산업의 분산배치를 통해 지역내 상생·균형발전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묶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절실하다. 특별법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60분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교통망 관련 조항이 이것 저것 들어 있다. 고속도로망은 사실 대체로 갖춰져 있어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광역철도망이다. 특히 광주-목포간, 광주-순천간, 목포-순천간, 광양-순천-여수간 광역철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는 광역철도가 없다. 수도권은

겨울나무를 바라보며

시골집 아래에는 너른 저수지가 있었다. 겨울철이 지나면 저수지 주변에 군락을 이룬 버드나무 가지에 연초록 물이 올라와 볼만 했건만 나는 잘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의 굴레에서 의기소침한 채 웅크렸다. 삶의 원적이 무너지면서 방향을 잃고 해매던 그때 삶의 지침서로 삼은 책이 노자의 ‘도덕경’이다. 그걸 옆에 끼고 읽을 때 ‘상선약수’(上善若水)나 ‘대직약굴’(大直若屈), ‘광이불요’(光而不耀) 등등 주옥 같은 구절에서 내 마음의 금(琴)이 맑은 소리를 냈다. 물처럼 자연의 소리에 맞춰 살고, 곧음을 뽐내지 않고 구부러진 듯 처세를 하며, 빛나되 번쩍거리지 않으려고 마음 속 결의를 다지곤 했다.

젊었을 땐 젊음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착각했다. 지각이 모자랐던 탓에 빚어진 일이었다. 젊음이 사라진 뒤 천금 같은 젊음을 낭비한 걸 깊이 자책했다. 무른 것은 부서지기 쉽고, 미약한 것은 흠어진다는 것도 미처 알지 못했다. 늙은 뒤에야 군력이 약해지고 뼈의 밀도는 떨어지며, 기억력도 나빠지고, 인생의 가능성도 사라진다는 실감을 했다. 노년기란 불가피하게 흑한 속 겨울나무의 처지와 같다는 걸 깨닫는다. 젊었을 때 겨울 나무를 보며 이런 시를 적적었다.

‘잠시 들렀다 가는 길입니다/외롭고 지친 발길을 멈추고 바라보는/빈 발판//빨리 지는 겨울 저녁 해거름/속에/말없이 서 있는/흙 없는/흔 하나//당분간 폐업합니다 이 들끓는 영혼을/외사귀를 때어 버릴 때/마음도 때어 버리고/문패도 내렸습니/그림자/하나/길

새벽 기도를 하노라면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피할 수 없었다. 때로는 지루함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허망함으로,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로, 때로는 막연한 불안으로, 그때 그때 포장을 달리하며 나타나지만 사실은 같은 놈, 즉 삶의 허기였다.

그것은 연인이나 가족도 채워줄 수 없다. 심지어 소울메이트라 여기는 영혼의 단짝같은 이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오직 스스로 채워야 비로소 채워질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다.

새벽 기도를 하다보면 가끔 충만감을 느낀다. 귀의(歸依)하는 마음에서 오는 충만감이다. 귀의, 돌아가 의지하는 마음이다. 돌아가는 곳은 신(神)이라 이름 붙힌 그 무엇이다. 하나님이란 부처님이란 뭐라 부르건 상관없다. 물론 신은 나의 밖에 물리적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신이 내가 아닌 일종의 대상이라면 신은 나를 가득 채울 수 없다. 신은 나의 대상이 아니다. 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두루하다. 편제한다. 상주한다. 모든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다 등등 온갖 존재 방식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신은 느끼는 것이다.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나’에 대한 존재감 혹은 무게 아니면 갈망을 홀홀 벗어버린 느낌이다. 그 느낌은 진정한 ‘나’, 신, 진리, 깨달음 등등 여러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지금의 나를 벗어났을 때의 느낌이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육신을 뛰어넘고자 하는 본능에서 촉발받은 느낌이다. 지금의 나에 갇혀 있으면 결코 허기를 면할 수 없다.

귀의하는 마음은 신에게로 돌아가 의지함을 통해 나

게 깰고/깡마른 체구로 서 있습니다’. (졸시, ‘겨울나무’ 정분) 겨울나무는 제 잎을 다 떨곤 채 해거름 속에 말없이 서 있다. 잎을 다 떨구고 겨울을 나는 나무는 무욕한 존재의 표상으로 삼을 만하다. 나이 들어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제 안의 욕심을 비우는 일이다.

청춘의 시기는 인격이 무른 탓에 치기에 빠져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그런 탓에 인생에 후회와 번민이 많아진다. 나는 봄여름의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을을 지나 어느덧 겨울로 성큼 들어섰다. 젊었을 땐 과오와 실패도 너그럽게 용서받았다. 하지만 장년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면치받기 힘들다. 어른이란 제 선택과 행위들에 책임을 질 만큼 충분히 시리분별이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까닭이다.

햇빛은 겨울나무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라고 자문한다. 그 물음은 한번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거들해서 제 내면의 청문회에 스스로를 세우고 따져 물어야 한다. 지저분한 행적의 세목들이 드러나 망신을 당하고 낙마한 장관 지명자는 그런 물음을 통한 자기 검증에 소홀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이의 인생은 탐욕이 자기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삼켜버린 사례일 테다. 그이가 변명 삼아 내놓은 말 중, 인생이 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말에 한 점의 진실이 없지 않지만 그제 누추한 제 과거에 대한 면죄부일 수는 없다. 누구도 제가 과거에 저지른 과오, 실패, 탐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함이다. 그래서 신은 일종의 도구이다. 지금의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다. 다만 신에게 존재성을 강하게 부여하면 서구적 관점의 종교적인 오류에 빠지게 된다. 반면 오직 스스로에게만 의지하는 수행은 ‘지금의 나’라는 굴레에 보이지 않게 속박당할 위험성을 품고 있다.

예불과 기도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행위다. 귀의한다는 것은 돌아가 의지하는 것이다. 만약 부처님이 귀의의 대상이라면 존경하고 경외하는 대상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굴레를 벗어났다면 부처님은 더이상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굴레를 벗어난 느낌을 굳이 존재적으로 표현하자면 부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찌되었거나 매일 예불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태어날 때 이유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나 목적 역시 없다. 하지만 아무 생각없이 사는 것은 목적 있는 삶이 아니다. 태어났으니 죽지 못해 사는 것일 뿐이다.

목적이 부여되는 유일한 삶은 수행하는 삶이다. 수행이란 나의 허기를 채우고 나의 운명을 바꾸는 행위이다. 깨닫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다.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행복하지 않더라도 역시 좋다.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선물처럼 찾아왔으니 이 또한 고마운 일이기 때문이다. 수행 자체가 삶의 목적이다. 삶이 곧 수행이라면 매 순간이 목적이다. ‘카르페디엠’하니 일일시호 일이다.

행정통합, 3개 권역 광역철도망 구축이 핵심

물론이고 다른 지방들은 광역철도가 이미 운영중이다, 부울경 권역에는 2016년부터 부산·울산간 66km 구간에 동해선 광역철도가 왕복 100회 운행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2024년말부터 1단계 구마-대구-경산까지 62km 구간에 대경선 광역철도가 왕복 100회 운행중이다. 대전·충남지역에서는 1단계 계룡사-대전-신탄진까지 35km 구간에 대해 충청권 광역철도가 올해 말 또는 내년쯤 왕복 130회 운행 예정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 철도를 이용해 작은 예산으로 넓은 거리에 걸쳐서 빨리 철도를 개통”했다는 점이다. 대경선 경우 2000억원의 예산으로 10년만에 개통을 마쳤다. 충청권 광역철도 경우 2600억원을 들여 12년만에 개통 예정이다. 예산은 차량 구입비와 역사 신설비로 대부분 쓰였다. 이중 30%는 지방이 부담한다. 대구경북에서는 600억원, 대전 충남 경우 690억원을 부담했다. 열차 운행도 코레일이 직접 맡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적자폭이 훨씬 적은 편이다.

우리는 광주-나주간 26km에 대해 1조 6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철도망이 아닌 새 철도로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중이다.

새 철도는 계획반영에서 개통하기까지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걸린다 (참고 : 광주-목포간 호남선 2단계 구간 경우 2006년 기본계획 수립후 아직까지 공사중, 목포-보성간 철도는 공사만 23년 소요,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경우 2016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후

아직도 미착공).

“①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면서 ②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 ③ 가장 늦게 광역철도를 도입하면서 ④ 가장 짧은 구간에 대해 ⑤ 가장 예산이 많이 들면서 ⑥ 가장 늦게 개통하는 방식으로 광역철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일시에 만회할 좋은 기회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저하게 뒤처진 광역철도망계획을 앞당겨야 한다. 이 또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최소한 다음 두가지가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

첫째, 3개 권역을 연결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지역이 지정되어야 국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울경권은 거제에서 부산을 거쳐 울산, 경주까지 160 km 이상의 거리에 광역교통지역이 지정돼 있다. 대구 경북권은 대구에서 110km 이상 떨어져 있는 청송군까지도 광역교통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부울경권, 대구 경북권, 충청권은 대부분의 지역에 광역철도망계획이 이미 수립 완료돼 있고 국가철도망계획에 기 반영돼 있다. 특별법 특례로 광주-목포간, 광주-순천-여수·광양간 지역이 광역교통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 지역의 광역철도망 구축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특례가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社說

5·18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비단 광주·전남 지역민만의 소원은 아닐 것이다. 전두환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 정신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12·3 내란 이전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겪으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때마침 정치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째서라도 6·3 지방선거에 맞춰 투표를 통해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한다.

최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데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그제 광주를 찾아 비상계엄 과정에서 확인된 헌법적 빈틈을 메우고 민주주의의 방향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

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이달 중 국민투표법 개정 등 물리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이 적기라고 했다.

지역에서도 광주시와 전남도, 5·18 단체 등 시민사회가 총 망라된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국민결의투표를 열고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개헌안 조기 발의, 국민투표법 개정 등 3대 선결 과제 이행을 촉구한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으로 당위성을 거듭 설명할 필요도 없다. 민주주의의 방벽을 튼튼하게 다지는 것은 물론 5·18에 대한 외국과 편향을 근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듯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원포인트 개헌을 통째서라도 지방선거에 맞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 없애자는데 비판만 하는 의사회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이달 말부터 호남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화순전남대병원을 찾은 것도 광주시가 구축해 호평받고 있는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점검하고 전국 모델 가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였다.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은 광주 21개 응급의료기관을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해 하나의 병원처럼 유기적으로 가동하는 시스템이다.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에게 가용 병상과 의료진 및 장비 보유 현황 등 700여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응급환자 발생시 일일이 병원에 전화를 돌리는 시간을 줄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효과가 크다. 전원 요청부터 수락 및 거절 사유, 관련 영상과 대화 기록을 시스템에 남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병원 사정을 이유로 환자 수용 거

부를 예방하는 역할도 크다.

광주시가 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응급실 뺑뺑이로 20대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응급실 뺑뺑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가 광주의 성공 사례를 전국 모델로 확산시키기 위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인데 지역 의사회가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것은 논리나 명분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

호남권 의사회는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실 뺑뺑이 원인이 사법리스크인데 이대로 시행하면 의료진 이탈만 부를 것이란 지적이다. 비판을 하려면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것은 소송을 걸지말라며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발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책임있는 행동일 것이다.

無等鼓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발표한 ‘기부트렌드 2026’의 핵심 키워드는 아이러니하게도 ‘AI 시대의 인간다움’이다. 기부로 나누는 감정, 가치를 만드는 사람, 직접 참여·행동하는 스토리두잉(storydoing) 까지…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지만 기부만큼은 여전히 인간의 감정과 책임, 선택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짚는다. 이는 기부의 변화는 소액화·일상화·참여형이라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국 요즘의 기부는 더 작아지고, 더 자주 일어

생각하게 한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115.6도와 101도를 기록하며 목표액을 넘어섰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다만 총 모금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이 결과를 단순한 감소로만 보고 싶지는 않다. 고액 기부가 줄어든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아닐까. 부담을 줄이는 대신 참여의 문턱을 낮춘 기부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겼다는 것은 여전히 누군가를 떠올리는 마음이 지역 곳곳에 살아 있다는 증거다.

기부는 더 가벼워졌지만 의미까지 가벼워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상에 스며들며 지속성을 얻고 있다. 한 번의 큰 결심보다 여러 번의 작은 선택이 이어질 때 나눈 오라캐다. AI가 많은 것을 대신하는 시대에도 기부만큼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번 겨울, 온도탑이 보여준 숫자는 그 마음이 아직 충분히 살아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보람 예방부 부장 bora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편 집 부 220-0649	〈대표 FAX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정 치 부 220-0634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제 부 220-0648	예 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사 회 부 220-0664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제 2 사 회 부 220-0680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디 지 털 부 220-0697	〈FA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